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

사료비 절감은 국제 경쟁시대에 있어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리고 사료 가격 안정화는 안정적 축산업 경영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다.

한미FTA 타결과 FTA체결 국가의 확대에 의해 축산업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사료가격 안정화를 통한 축산업 비용절감이 최대 과제에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은 올 들어 사료가격이 2차례에 걸쳐 인상되고, 또 다시 추가 인상설이 흘러나오면서 축산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사료가격 인상이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해상운임의 상승, 그리고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의 개발 확대에 의한 국제 사료곡물의 수급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오른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료업체가 자체적인 경비 절감을 통해,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전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사료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축산농가가 있어야 사료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잃으면 국내 사료업체

도 그만큼 고객을 상실하고 설자리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료협회를 중심으로 사료업계가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사료업계와 국내 축산업계의 공통의 걱정거리이다.

#### ◆ 국내 축산업에 있어 사료가격 안정화의 중요성

국내 모든 축산농가가 사료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사료비의 인상은 축산농가의 수익 감소로 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될 정도로 사료비의 비중이 높다.

결국 사료비 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고품질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하는 국내 축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료비 절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우의 경우 정부의 한우 브랜드화와 고품질 차별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1등급이상의 고

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가격의 추가 지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행히 한우가격이 2003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료비 인상에 따른 비용 지출은 상쇄할 수 있었으나, 올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파로 인해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사료비 부담은 경영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사료비의 경영상 부담은 결국 고품질 차별화 노력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힘들어 구축해 놓은 한우의 고급화 이미지가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돼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양돈산업이 호황을 이어오고 있으나, 돼지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질병에 강한 사료 개발 보급이 이뤄지면서 사료비의 부담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돼지가격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양돈산업의 사료비 절감 노력은 가일층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료가격 인상은 전체 축종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FTA에 대응하기 위한

◇ 축종별 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 (2006년 기준)

구분	사료비(A)	경영비	생산비(B)	구성비(A/B)
한우	송아지	1,078,528	2,078,583	38.6
	비육우	1,234,632	4,538,570	27.2
젖소	2,301,939	3,012,916	3,870,484	59.5
돼지	79,279	161,793	173,842	45.6
육계	5,063	9,535	10,012	50.6

가격 경쟁력 강화하는 목표와는 괴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료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축산업 경영은 쉽지 않을 것이며, FTA의 여파로 국내산과 수입산 축산물의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존속 그 자체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이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위생·안전성 강화, 고품질화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사업, 생산이력제 등 국내 최고기시장의 유통투명성 확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돈의 경우 축사 현대화, 질병발생억제 그리고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닭과 오리는 수입육과 구분되는 유통체계 개선과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낙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와 자동화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비 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농림부의 정책도 축산업의 특성상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 ◆ 사료가격 안정화의 과제

한미FTA가 추진되면서, 그리고 해외 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과 운임상승 등으로 사료 원료곡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

한 사료업체와 축산업계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사항을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사료업체 자체의 사료가격 안정화 노력이 최우선의 대책이겠지만, 사료가격 안정화 그 자체를 사료업체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의 우선순위는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적 사료가격 보전정책이지만 이는 WTO와 FTA 구조 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순 꼽히는 것이 사료원료 구매자금의 확대 지원이다. 원료곡물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사료산업의 특성상 사료구매 원료자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무이자 지원은 사료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수단이다. 또한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의 항구적 적용 조치, 그리고 현행 102분의 2인 사료원료 의제매입세 환급세율의 상향 조정도 사료가격을 1%이상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사료업체 자체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사료업체가 사료분야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부에 제기한 것은 주목받을 만 하다.

사료곡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곡물 메이저를 통한 구매이외에는 직접 재배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수급불균형과 유기상승 등에 종속되기보다는 해외자원의



직접적 개발의 필요성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항구적 조치라는 점에서 사료업계에게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당연히 정부가 사료자원 해외개발 투자를 위한 정책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료업체에 장기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료업계의 이 같은 제도 개선 요구 및 새로운

활로 개발 노력 등은 결국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축산농가들도 경영비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경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인하와 견줄만한 정책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축산농가 사료업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